

연기론·무애 사상, 한국 문학에 큰 영향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2014만해축전서 다양한 문학세미나

열반 70주기를 맞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혼을 기리는 '2014 만해축전'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등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만해축전에서는 만해학회와 한국시인협회 등에서 다채로운 학술행사를 열고 500여 문학인들이 함께 불교와 문학의 접합점을 논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학사상, 새롭게 개편해야” 현대불교문인협회 ‘연기론과 한국문학’

현대불교문인협회가 8월 11일 개최한 ‘연기론과 한국문학’에서는 김옥성 단국대 국문과 교수의 ‘한국현대 시인의 연기 사상’,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의 ‘연기법 관점에서 본 연애소설’, 윤종갑 부산대 교수의 ‘불교의 연기론과 서구의 인과론’, 박상란 강남대 연구교수의 ‘업보유희담의 근대적 양상 의의’ 등 한국문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이 논의됐다.

먼저 만해 스님을 이광수·서정주 등과 비교한 김옥성 교수는 “만해 스님은 이광수나 서정주 등에 비해 합리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그의 문학에서는 연기사상이 만유의 평등사상으로 드러나며,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논리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광수는 만해 스님이 말한 영혼불멸과 달리 모든 행위를 전생의 업의 결과로 해석하는 불교의 이해를 보인다. 그는 내세의 선과를 위한 현실의

희생을 권장하는 논리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서정주의 문학은 불교적 영원주의로 대변되는데 이는 한국전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교적 영원주의로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며 “전후 고통에 대한 자기 치유와 자기구원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광수와 유사하게 현생의 고통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희복 교수는 맹목적인 감애를 추구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김인숙의 <우연>과 권지예의 <4월의 물고기> 등 2편의 연애 소설을 연기적 관점에서 해석해 냈다. 송 교수는 “소설에서는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가 어떤 과격으로 치달았는지를 잘 나타낸다”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인해 생긴 갈애는 송산 스님이 말했듯 내려놓음으로 해결이 된다. 이번 만해축전이 우리 소설사에 새로운 인물 유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화인들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열린 만해축전문학세미나 모습. 올해는 불교의 연기·무애사상 등과 연계된 문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선시, 현대인의 삶에 나침반 역할” 시와세계 ‘선시와 아방가르드시의 회동’

이와 함께 시와세계에서 개최한 ‘선시와 아방가르드시의 회동’에서는 이승훈 한양대 명예교수의 ‘조사선 시학’, 설태수 세명대 교수의 ‘윌리엄 블레이크와 중도’, 송준영 시인은 “선시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아라는 실제 앞에 슬픔과 비탄, 근심 등 물질문명과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돼 오는 병폐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명예교수는 “조사선에서 말하는 청정심 무념은 순수하고 천진한 아이들의 마음과도 닿아있기에 ‘동시’에서 조사선 시학은 출발한다”며 “조사선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맑은 마음으로 걸릴 것이 없는

무애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선시의 세계는 현실을 초월한 고고한 부분이 아니라, 일상 속의 수행의 일환”이라며 “선은 세속에 나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설태수 교수는 1700년대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중도사상을 소개했다. 설 교수는 “블레이크는 모든 존재의 구성 원자는 형태만 달리할 뿐 한몸을 이루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세계관 하에 시를 썼다”며 “존재의 전부가 곧 나와 한몸이므로 어느 한 개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사상의 전개, 극락과 지옥도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그 근간이 기독교적임에도 불교와 소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11일에는 창작21작가회의 ‘민족주의와 아시아문학’, 유심시조아카데미의 ‘시조형식과 그 운용의 미학’ 등이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4명 선정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연구자 지원사업에 금강대 교수 1명과 연구교수 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2014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장민호 교수(글로벌인재학부 영어통번역학과) ‘IFRS채택이 회계정보 가독성에 미친 영향’은 2016년 4월까지 2년 동안 총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에는 각각 강명희 연구교수의 ‘자연어 이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구(아로야식과 기제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와 김진숙 연구교수의 ‘동아시아 불상조상기를 통

해 본 정보신상의 수용과 전개’가 2017년 6월까지 3년 동안 각기 총 1억 2,000만원을 받는다.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 후 국내연수)에는 강형철 박사의 ‘불교 철학사론의 철학적 발전과정 연구’가 2016년 6월까지 2년 동안 총 6,8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금강대는 인문한국(HK)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 됐으며 저술 출판 지원사업(최고표 교수, 박영길 연구원) 2건, 명지번역 지원사업(박영길 연구원), 신진 연구 지원사업(하상근 교수) 등에도 선정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광주 자운사 아미타여래좌상 보존처리

광주 동구는 8월 8일 광주 자운사에 봉안 중인 보물 제1507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유물 82점에 대해 문화재 보존처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운사 불상은 조각기법이 자연스럽고 신체비례가 적당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줘 오래된 고려시대의 목조 불상으로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인 자운사 복장유물은 대수구다라니(大隨求陀羅尼) 및 주금강경(注金剛經) 등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직물류 유물과 1611년에 내장된 후령통(絨鈴筒), 팔엽연화(八葉蓮花) 등은 불교학 내용연구와 미술 도상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문화재 보존처리는 지난 2006년 12월 보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문 물에 걸쳐 실시된다. 불상은 3차원 정밀 실측을 통해 조사한 후 급도급과 옷칠을 모두 벗겨내고 오염물 세척, 균열 부위 접착 등을 시행한다. 복장유물은 배지를 덧대 원형이 훼손되지 않게 처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용성 스님, 간화선 전통 ‘돈오점수’로 보았다”

중앙승가대 법상 스님, 대각사상 21집에서 주장

한국불교 수행전통으로 자리잡은 간화선 수행에 대한 용성 스님의 시각을 다룬 논문이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강사인 법상 스님(사진)은 용성 조사 탄신 150주기를 맞아 발간된 대각사상연구원의 <대각사상> 21집에서 ‘용성진종의 <선문촬요> 번역과 간화선 정관’을 통해 용성 스님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법상 스님은 “용성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정관은 매우 실제적이란 것이 특징”이라며 “용성 스님은 설법한 내용을 모두 일심으로 치환해 오직 마음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큰 깨달음이라고 설파했다. 점차적인 깨달음의 차례를 단박에 초과해 점차 습기를 제거하는 점수를 드러냈고 이는 능엄경 인용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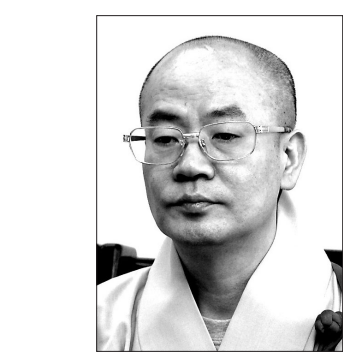
법상 스님은 “이와 함께 용성 스님은 <선문촬요>를 번역하며 달마의 저작으로 간주

된 <관심론> 등을 함께 덧붙여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법상 스님은 “한문 불전에 대한 근현대적 번역은 용성 스님에서 본격화됐다. 특히 용성 스님의 <선문촬요>는 간화선행의 요점이 되는 부분을 모두 총괄해 검토했다”며 “특히 용성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용어를 쉽게 풀어 쓰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는 개인과 사회, 국가적 실현을 위해 활용돼야 함을 피력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상 스님은 그 사상이 드러난 부분을 용어의 한글화에서 찾았다. 용성 스님은 불(佛)을 각(覺)으로, 열반(涅槃)은 원적(圓寂) 등으로 번역했으며 다양한 한문어구를 한글로 바꾸었다.

법상 스님은 “불(佛)의 경우 붓다의 음사



미의 내용으로 해석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성 스님은 ‘한문 투의 한글 음사’가 아닌 ‘한글 의미의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당시 번역한 다양한 어구는 현대 불교학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요어구들이다”며 “불교학계는 그 가르침에 따라 일반대중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용어를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백제학회, 충북대서 제17회 정기발표회

백제학회(학회장 김주성)는 8월 22일 충북대 인문대학 강당에서 ‘백제사연구쟁점 대해부’를 주제로 제17회 정기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노중국 계명대 교수의 ‘백제사연구를 돌아보다’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조가영 서울대 박물관 학예사의 ‘고분을 통해본 백제의 국가형성과 발전’ △정동준 한성대 한국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의 ‘백제의 중앙권력과 통치조직’ △전우식 국민대 교수의 ‘백제 지배세력의 권력구조 검토’ △박윤선 대전대 교수의 ‘백제 국제관계사의 체계화 시론’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의 ‘백제의 지방지배’ 등이 발표된다.

김주성 백제학회장은 “백제 초기 성립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043)261-2902 노덕현 기자

‘일본불교사 공부방’ 12호 발간

일본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모임 일본불교사독서회는 최근 ‘일본불교사 공부방’ 제12호를 펴냈다. 일본불교사독서회는 2005년부터 김호성 동국대 교수를 주축으로 일본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다. 이들은 토론과 연구 내용을 모은 ‘일본불교사 공부방’을 내왔다.

이번 제12호에는 △호넨 스님의 ‘일지소소식’ (김호성·김현욱) △호넨 스님의 ‘일매기정문’ (김호성) △아나기 무네요시

의 ‘나무아미타불’ 제18원(독서회)이 실렸다. 특히호넨 스님의 ‘선종과 정토종의 문화’로 △선종과 정토종(이현욱) △이하백(二河白道)의 가르침(송재근) △간시궐의 고증(윤창화) △교토의 차 파는 노인, 바이사오(고연미) △경허의 얼굴’을 읽고(안숙경)가 수록됐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불교사연구소에서 받은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의 원영상 학회장 인터뷰도 실렸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71집 원고 모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학회지 <한국불교학> 제71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한국불교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모집분야는 불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이며 마감은 8월 31일까지다.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은 한글요약, 주제어(5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영문주제어 등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 및 지위, 연락처 등을 명기해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회(hanbulhak@daum.net)로 보내면 된다. 학회지 수록여부는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71집 발행 예정일은 9월 30일이다. 노덕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둬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불(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총지용출품(21:13)	제22, 촉루(04:36)
CD02-제2, 방편(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11:22)	CD08-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약왕보살본사(23:10)
CD03-제3, 비유(54:48)	제10, 법사(18:39)	제17, 보살공덕(23:31)	CD10-제24, 모음보살(16:12)
CD04-제4, 신해(30:24)	제11, 건보달품(22:19)	제18, 수회공덕(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19:26)
제5, 약조유(16:08)	제12, 전바달다(15:54)	CD09-제19, 법사공덕(24:17)	제26, 다리니(10:07)
제6, 수기(17:13)	CD07-제13, 권지(10:07)	제20, 상불경보살(13:15)	제27, 모정영왕본사(14:46)
CD05-제7, 화성유(51:41)	제14, 안락행(27:27)	제21, 여래신력(08:59)	제28, 보현보살권발(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